

목포 '수산업 지원단지' 조성 시급

위판액 2천억대 수산물 산지 불구 지원시설 부족

전남 서남권의 최대 수산물 산지 유통거점인 목포에 '수산업 종합 지원 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목포시와 수협에 따르면 목포·신안수협의 연간 위판액은 2000억대로 전국 5위권에 이르고, 국내 참조기 생산량의 35%를 점유하는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제빙·저장 등 기반시설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kg당 열음 값이 부산 공동어시장 38원, 여수 수협 44원, 삼천포 수협 44원, 서귀포 수협 52원에 불과하지만 목포수협은 무려 65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어항시설이 어선 정박·위판·소규모 가공·물자 보급 등 단순 기능에 불과한데다 시설도 한 곳에 집적돼 있지 않고 분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가 항만계획에 따라 내항 기능이 북항으로 이전되고, 현수협시설도 항만 재개발지구로 포함돼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 조성을 국가 계획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목포시의 주장이다.

항만법상 국가관리 무역항인 북항은 현재 어항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가관리 무역항 내 어항구의 항만시설에 속하는 어선·어구보전과 보급, 수산물 유통 판매 보관, 어

항 정화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개발 및 비용을 부담할 정부 부서가 없다는데 있다.

또 어항법상 기능시설 및 어항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개별 사업별로 지원돼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나 목포시의 경우처럼 새로 신설해야 하는 경우 관련 사업이 없어 각종 시설 간 연동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목포시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2010년부터 3년째 즐기자 캐릭터 사업이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수산업 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재정지원율이 최소한 7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북항 배후부지 총 11만 8843㎡ 가운데 수산업 종합 지원단지 부지 6만 3117㎡에 건물 연면적 2만 7300㎡로 사업비 384억(국비 70%, 시비 10%, 자부담 20%)을 투입해 오는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서나 인력의 보완도 시급한 사안이다. 목포시 해양수산과의 경우 정원 17명 가운데 수산직은 단 7명에 불과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어린이 바다과학관 내달 개관

총 규모다.

목포 삼학도 근린공원 내에 건립된 어린이 바다과학관이 다음달 1일 문을 연다. 117억원이 투입된 어린이 바다과학관은 7130㎡ 부지에 3

/연합뉴스

완도 청산도 '슬로시티 느림공원' 만든다

4억들여 이달 착공 3월 완료

야외공연무대·상장을 조성

완도군은 21일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에 가고 싶은 섬 시범 사업 중 하나로 청산도 도청리 복지회관 옆 물양장 일원에 슬로시티 느림공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청산 슬로길(11코스 42.195km)이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국제 슬로길 제1호'로 인증을 받은 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이미지에 걸맞은 느림의 미학을 구현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군에 따르면 느림공원은 사업비 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달 착공해 오는 3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공원에는 야외 공연무대, 친환경적인 조경시

설 및 상장물, 화장실<사진> 등으로 구성되며, 관광객 힘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험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현되는 축제의 장으로도 쓰인다. 한편 청산도는 지난 2007년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섬 관광 자원화 사업인 가고 싶은 섬 시범 사업 대상도서로 선정되면서 125억 원의 예산으로 청산도 방문자센터 신축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무안=김민준기자 jun@

무안 일로 회산백련지 생태관찰데크 등 설치

무안군의 대표 관광지인 일로읍 회산 백련지가 사계절 관광지로 활비꿈 한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백련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 관찰 데크와 전망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세울 계획이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과 그늘막, 바닥수 등을 만들기로 했다. 무안군은 회산 백련지에서 연간 강변으로,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개발가능 무인도 438곳

목포항만청, 9개 시·군 실태조사

목포지방항만청은 21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목포시·신안군·완도군 등 9개 시·군의 1209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무인도 상당수가 당장 이용할 수 있고 개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청에 따르면 절대보존해야 할 섬은 65곳, 준 보존해야 할 곳은 210곳이었으며, 이용 가능한 무인도는 496곳, 개발 가능한 무인도는 438곳 등이다.

무인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허용된 이용 가능한 무인도는 신안 321곳, 진도 50곳, 완도 47곳, 해남 21곳, 무안 19곳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 가능한 무인도는 신안 309곳으로 가장 많으며 완도와 진도가 각각 44곳, 해남 30곳 등으로 집계됐다.

절대보존과 준 보존은 신안이 26곳, 83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가 19곳, 7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목포지방항만청 관계자는 "조사에서 제안된 4개 관리 유형 지정안은 국토 해양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항만청은 무인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목포대와 군산대에 실태조사를 맡겼다.

/김준석기자 kjs0533@

내년 국고사업 예산확보 완도군, 대책회의

완도군이 이달부터 사실상 2014년도 국고사업 예산 확보에 나섰다.

완도군은 21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고 지원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조류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건립, 완도항 미리나 시설, 세계중요농업유산 관광지원화 사업 등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인 2014년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신지~고금 간연도교 등 사업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는 올해부터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현안사업 설명을 위한 팬투어 실시 등을 병행하고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도 조기에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북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대박'

2만5천여명 다녀가... 지역 대표 축제 자리매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에 지난 20일까지 2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간 것으로 잡정집계됐다.

지난 주말인 19일과 20일에만 6000여명이 찾은 축제장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남원시는 21일 "운봉애향회와 운봉읍이 주관·주최로 남원 허브밸리와 바래봉 일대에서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바래봉 눈꽃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각 마을과 사회봉사단체 소속 트레터 보유 농가와 자원봉사자들이 도로 및 행사장 제설과 눈 운반을 하는 것은 물론 축제장 진행 및 아간 눈썰매장 보수 등 시설을 정비까지 도맡으

면서 유급인력 없이 순수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된다는 것도 바래봉 눈꽃축제의 특징이다.

또 축제기간 연날리기, 팽이치기체험, 등반대회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부터 전문선포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바래봉을 찾고 있다.

남원시는 70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눈꽃축제장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입장료만 내면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을 무료로 대여하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대거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9일에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눈꽃축제장을 찾아 자원봉사자와 전 행보원 등을 격려하기도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지난 19일과 20일 6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은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장. 어린이들이 축제장 내 마련된 눈썰매를 타고 있다.

단신

서부산림청 "논·밭두렁 소각해 드려요"

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논·밭두렁에 대한 소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46개 조로 구성된 산불인화물질 제거반을 동원, 농민이 가까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즉시 경작지 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해 주기로 했다.

했다.

오는 3월부터는 소각 금지기간으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부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46개 조로 구성된 산불인화물질 제거반을 동원, 농민이 가까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즉시 경작지 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해 주기로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 블로그 '전주담우' 시민 운영단 모집

지난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주시 블로그 운영단 '전주담우'가 다음달 '시민 블로그 운영단'을 모집한다.

또 올 봄 개최되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는 파워블로거 초청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 대표 블로그 '한바탕 전주 즐기기'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담우'는 시 직원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천 이야기', '남부시장 문전성시', '외출을 유혹하는 아트풀리스' 등의 테마를 시리즈로 블로그에 남겨 인기를 끌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에 가자미액젓 공장 신축

HACCP시설 갖춰... 연150t 액젓 생산 15억 매출 전망

군산 특산품인 가자미액젓의 HACCP 시설을 갖춘 공장이 지역에

는 최초로 신축돼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해안 군산해역에서 주로 잡히고 있는 가자미는 액젓으로 발효할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에 첨가할 수 있어 대량생산이 잘 실현된다. 군산시는 21일 "(주)명품수산이 20여 년간 연구 노력 끝에 '숙성용 용기 특허' 등 다양한 특허를 받아온"며 "친환경 축산물 자체 소비시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이나 군 축산환경과 명품축산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동희기자 dhlee@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국에 유통되는 별가자미의 70% 이상이 군산수협 어판장을 통해 위판이 이뤄지고 있다.

국립군산대 수산연구소에 따르면 명품수산 측이 개발한 용기로 가자미 액젓을 숙성·발효할 경우 총질소와 아미노산 성질 향이 높고 유리아미노산, 글루타민산, 알라딘산, 필수 아미노산 등이 다양 함유하게 되는 등 그 우수성이 인정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자미액젓이 전국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스나 국간장용 등 어간장 조미식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시장성은 아주 높을 것"이라며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원인 수산물 제조·가공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사회적기업협의회 공식 출범

정읍지역 8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정읍사회적기업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업 간 정보 교류와 협력으로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읍=박금석기자 parkks@

고창, 저소득층 120세대 집고처주기

고창군이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20세 대로, 지원 범위는 지붕개량·벽체·천장·부엌·화장실·창호 개보수, 방수